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8일 한미 정부 당국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발표 시기와 배치 후보지를 놓고 설왕 설래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임에는 틀림없다. 한국 측보다 미국 측이 서둘렀던 느낌이다.

지난 1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중국·북한·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까지 한반도의 사드 배치 완료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져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말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적 성과가 필요했다. 내년도에는 박근혜정부의 임기 말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이 어렵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의 자충수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하지만 얼마만큼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의 논란도 있다.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요격에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사드는 아직 완성된 무기 체계가 아니고 개선해 나가는 진행형의 요격 체계이다. 지난해 3월 미국 국방부 소속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국장은 사드의 비행 실험과 신뢰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3000km까지의 중거리미사일이다. 북한이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 내외의 탄도미사일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X-밴드 레이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요격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사드 배치 시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압박 메시지도 보낸다. 경제적·외교적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 한중 관계의 악화는 시간문제다. 중

국은 한류와 관광객과 같은 사회·문화 분야에서부터 경제·외교 분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갈 듯하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로 한반도 정국이 불안하다고 하면 중국 관광객 숫자는 상당히 줄 것이다. 한국이 중국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한류에 대한 인식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중국이 선호하는 한국 화장품에 이물질이 발견돼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 한국 화장품의 대중 수출은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 의한 대북 압박 공조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는 이익보다 손실이 예상된다. 예기이론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면 느슨한 합의 이행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해법을 제시한다.

러시아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사드는 한국형이 아니라 미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비판한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예고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는 북한을 압박하는 5대 1 구도가 형성됐

다. 앞으로는 3대 3의 구도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최첨단 무기의 각축장이 되면서 남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점점 멀어질 듯하다.

우리 내부의 갈등도 우려된다. 전자파에 의한 국민건강 문제와 ‘내 지역엔 안 된다’는 nimbi 현상이 만만찮다. 정부는 X-밴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5도로 시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X-밴드 레이더는 하루에 몇 시간 운용되는가에 따라 전자파의 발생량은 다르다. X-밴드 레이더보다 몇백 분의 일로 적은 고압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리는 잘 안다.

미국이나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영토가 넓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에는 사드 배치가 어렵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형에는 쉽지 않다. nimbi현상은 이미 예고된 문제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서 수많은 nimbi현상을 경험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남남 갈등·지역 갈등·남북 갈등·동북아 갈등 등이 서로 엉켜서 중첩적으로 일어난다.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소통을 하는 것이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해법이다.

社說

마지막 개각 지역 편중 해소와 탕평인사를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지만 호남 차별 해소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선 과정에서 ‘탕평’과 ‘대화합’을 내세웠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자칫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옛그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심각한 호남 소외의 단면을 들춰냈다. 박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 26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고 있는 반면에 호남은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쓰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 구분 없이 인재를 골고루 채용하고, 뒤처진 호남을 더 배려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로 끝날지도 모르게 된 데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개각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에서 야권과의 협치 방침에 이어 내각 개편을 통해 후반기 국정 과제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범위와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개각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이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개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각에서조차 탕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정부는 인사와 예산에서 끝내 ‘영남 편중 정부’로 불릴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능력 위주로 사람을 골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허울 좋은 변명일 뿐이다. 찾아보면 실력을 갖춘 호남 출신 공직자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배려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로 끝날지도 모르게 된 데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지자체들, 화순처럼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바다와 인접되지 않은 내륙의 산골 지자체인 화순군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된다고 한다. 과거 양돈단지였던 까닭에 약취로 인해 주민 민원의 단골 대상이었던 부지가 화순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화순군은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국비와 군비 등 140억 원을 들여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 보상, 산업단지 지정 및 인허가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륙에 위치한 화순군이 어떻게 해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할 생각을 했으며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지 탄탄과 함께 궁금증을 갖게 된다. 사실 화순군이 이를 처음 설명할 때만 해도 해수부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화순군은 설득 논리를 철저히 준비했던 모양이다. 안동 간고등어 사례가 바로 그것이었다. 안동 역시 내륙에 자리했지만 간고등어를 특산물로 정착시켰다. 화순군도 전남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해 전국으로 유통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수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 등이 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낙연 지사도 “구중군 화순 군수가 바다도 없는 화순에 수산식품거점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긴가민가했었다”며 “현장을 둘러본 뒤 전남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주민 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지자체들에게 화순군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번 화순군의 쾌거는 ‘중요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종교칼럼



양 홍
광주서광교회 협동목사

역설(逆說)의 삶

﴿왜》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완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정신적, 신앙적 수학의 계산법이 있다. 기독교의 신앙적 세계는 이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의 세계다.

세월을 계수하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계수하는 방법은 하루가 24시간. 한주간이 7일, 한 달이 30~31일, 열두 달은 일 년, 일 년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때가 되면 은퇴하고,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고, 늙으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4계절을 구별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계산법이나 자연법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진리인 까닭에 저는 신앙의 계수법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법은 하루가 하루인 것이며 하루는 24시간이지 하루가 일 년이 될 수 없고 천년이 된다는 것은 망상이다. 24시간인 하루가 차면 늘고 죽는다는 것은 빈틈없는 철학의 원리이고 과학의 이른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며 시간의 갈수록 새로워 진다. 사람이 땅에 묻히고 죽으면 흙이 되는 것인데 죽지 않고 살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셨다.

죽어도 부활이 약속돼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우리의 해(年)를 계산하는 지혜를 가르치셨다. 어떤 비관론자들과 같이 인생 70을 살고도 자는 시간, 병들었던 날,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세월을 빼고 나서 행복했던 날이 불과 며칠이 아니더라도 하는 일생계산법을 배우지 말자. 구름 끼었던 날로 인생을 계산하지 말자. 청명했던 날로 인생을 계수하자.

지나온 날과 앞으로 남은 날을 세워보자. 길었다고 하지 말고 짧게 남았다고 하지도 말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루를 살기도 천년과 같으며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기독교인 가운데는 자신의 신앙하는 것이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야 복음의 위대성이 시어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철학은 인생이나 세계의 궁극적 근본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며, 과학은 어떤 가정(假定)하에서 사물을 탐지하여 체계를 세우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며 과학은 체계적으로 본다. 전자는 원인으로부터 추구를 시작하고 후자는 결과로부터 탐색을 시작한다. 이 두 학문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어긋나서는 성립

될 수가 없다. 이성과 지성의 금지탐이 철학이요 과학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을 비 철학적으로 비과학이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까닭이다.

믿지 않고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다. 그러므로 성서의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지 말고 ‘차녀 탄생’, ‘부활’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그것은 성서의 권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한없이 축소시키는 어리석은 자의 소행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인에게는 과학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가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계신다. 신기한 해답을 주는 수수께끼 같이 신기하다. “작을수록 커지는 것” 그것은 구명이다. “물인데 하나를 깨버리면 하나(통일)”가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은 역설적이지만 진리다. 더할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로 인해 생겨났고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역사를 배우자. “목숨을 잃는 자는 얻고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산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위해 우리 모두 굳게 서자.

기고



안 규자
장흥 관산읍장·수필가

친절이 관공서 문턱 낮춘다

하니 모를 나르는 모쟁이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바쁜 농사철이어서 그러하였으려나...” 스님은 어리석은 중생을 나무라지 못한 채 동네를 빠져나왔다.

몇 년 후 스님이 다시 그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죄씨 집 근처에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인 그들 선조의 묘가 눈에 들어왔다. 집안으로 들어가 “밥은 있는데 인물이 없구나. 어허! 낭패로고”라면서 목탁을 두드렸다. “스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요?” “방금 이 맥의 선조로 보이는 묘소 앞을 지나쳐 왔는데 냇물이 묘와 너무 가까이 있어 후손들의 출세 길에 지장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이라고 했다.

죄씨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 비책을 물었다. “선조의 묘가 갈마음수형이니 묘 옆으로 흐르는 냇물의 물길을 되도록 멀리 돌리면 금생은 물론 후생에도 대단한 복을 받아 장차 후손들은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 알려주고는 유유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갈마음수형 묘자리라면 ‘목 마른 말이 물을 먹는 형국’으로 자손들은 부귀하고 크게 흥할 자리다. 그런데 말이 물을 마시려면 죄씨 선조의 묘와 냇물은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물길을 멀리 돌려 흐르게 해버렸으니 그 이후 죄씨의 세도는 차츰 기울어 오늘날 단 한 가 구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1992년 미국 LA 흑인폭동 때 화를 면한 한국인주유소가 있었다. 주변 주유소들이 화마에 휩싸여 온 도시가 생지옥의 나라에서 밀고 있을 때 “여기는 안돼! 오랫동안 나에게 도움을 준 내 아저씨 주유소”라고 하면서 한국인 사장의 보살핌을 받았던 한 흑인 청년이 목숨을 걸고 이를 밤을 지켜낸 사투의 결과였다.

그뿐만인가? 구레온 소제 운조루(雲霧樓)라는 고택은 한국전쟁에서 좌우의 대립 때도 화를 면했다. 누구라도 열 수 있 다는 타인능해(他人能解) 글귀가 새겨

진 쌀뿔주 덕분이었다.

굶는 자들이 쌀을 가져가도록 한 운조루의 배려는 “집주변 배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주변에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고 항상 후하게 대접하라.”는 경주 최부자집의 자손대대로 내려오는 3백년 부(富)의 비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이리라.

내 집에 오는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 복을 받는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내게 복을 주러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하고 싶고 목소리 높여 큰 소리치는 사람일 수록 더욱 더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무실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자리부터 권하며 차한 잔이라도 대접하라”고 당부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공자님도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평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우리 고향이지만 정말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광주·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자인들과 만나면 오래 들은 이야기다.

“고향이라 더 좋을 것 아닌가. 다른 지역은 어떠냐?”고 물으면 “다 지역 관공서에 찾아가 서류나 민원을 접수 하면 대개는 정해진 규칙과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이 처리되는데 우리 지역에선 ‘무언가 까다롭다’는 느낌이 든다”는 하소연이 되돌아오곤 한다.

“원칙대로 일을 하면 대 어깨를 토닥거려 주긴 하지만 가슴 한 켠이 찢찢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민원인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서일’ 것이다. 그리고 “고향에서 일을 하려는데 조금은 원만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겠지”라는 선부른 기대도 실망감을 키우는 원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로서야 원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일을 처리할 터이니 민원이 어떻게 생각하던 별 관계는 없을 게다. ‘선자불래(善者不來) 래자불선(來者不善)’(좋은 의도가 있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찾아온 자는 좋은 의도를

히 준비했던 모양이다. 안동 간고등어 사례가 바로 그것이었다. 안동 역시 내륙에 자리했지만 간고등어를 특산물로 정착시켰다. 화순군도 전남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해 전국으로 유통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수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 등이 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낙연 지사도 “구중군 화순 군수가 바다도 없는 화순에 수산식품거점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긴가민가했었다”며 “현장을 둘러본 뒤 전남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주민 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지자체들에게 화순군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번 화순군의 쾌거는 ‘중요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선민의식

가지고 있지 않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 민원을 들고 찾아왔을 데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트집 잡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민원인들은 부탁하거나 요구를 하는 입장이고,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니 양자 간에 종종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법과 규정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 법과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할 것임은 믿기에 민원인들도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민원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국가 백년대계’를 지휘하는 교육부의 고위 간부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내뱉은 것이다. 일개인의 망언이지만 모든 공무원과 국민을 모욕하고, 서로의 믿음을 깨뜨리는 발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지닌 공무원에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금수저’들의 횡포에 공무원의 비뚤어진 선민의식까지 견뎌 내야 한다면 너무도 서러운 일이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